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성정체감·
성고정관념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 전공

이 동 재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성정체감·
성고정관념의 관계

지도 장 순 복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6월 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 전공

이 동 재

이동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년 6월 일

감사의 글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대학원 주임 교수님으로 입학시부터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강규숙 교수님, 바쁘신 중에도 논문의 논리적 체계를 위해 문장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히 지도해 주신 장순복 교수님, 논문의 구성부터 영문 초록 작성까지 부족한 저를 채워주신 김 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의 분석과 통계기법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선희 교수님, 언제나 조언자 역할을 해 주며 항상 시간을 내어준 최영진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자료 수집을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며 격려와 도움주신 남자 간호대학생 대표 김성한 군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구의 내용들이 남자 간호대학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연구에 참여해 주신 남자 간호대학생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주변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간호학과 입학시부터 격려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님, 어머님, 형님 내외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위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장인, 장모님께도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반의 학위과정 동안 늘 함께 동거 동락했던 양정숙 선생님, 임지영 선생님, 정승명 선생님, 김해리나 선생님, 송선주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옆에서 묵묵히 도와준 아내 안성민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04년 6월

이 동 재

차 례

차례	i
표차례	iii
국문요약	i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용어의 정의	4
II. 문헌 고찰	7
1. 전공만족	7
2. 성정체감	11
3. 성고정관념	15
III. 연구 방법	21
1. 연구설계	21
2. 연구대상	21
3. 연구도구	22
4. 자료수집	24
6. 자료분석	25

IV. 연구결과	26
1.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26
2.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분포	29
3.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	30
4.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 정도	31
5.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	32
6.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과 전공만족의 상관관계	34
7.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에 따른 전공만족	35
8.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고정관념	36
V. 논의	37
VI. 결론 및 제언	39
1. 결론	39
2. 제언	42
참고문헌	43
부 록	48
ABSTRACT	57

표 차례

<표 1> 남자 간호대학생 표본 추출	21
<표 2> 연구도구의 구성	24
<표 3>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28
<표 4>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분포	28
<표 5>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	30
<표 6>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 정도	31
<표 7>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	33
<표 8>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과 전공만족의 상관관계	34
<표 9>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별 전공만족의 정도	35
<표 10>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별 전공만족의 차이	35
<표 11>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별 성고정관념의 정도	36
<표 12>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별 성고정관념의 차이	36

국문 요약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성정체감·성고정관념의 관계

본 연구는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강한 한국 문화 속에서 여성 주류의 학문인 간호학을 전공하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확인하고 그들의 성정체감, 성고정관념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4개 간호대학과 지방 소재 16개의 3·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으로 총 94명이었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였고, 질문지를 통한 자가 보고식과 우편법으로 자료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전공만족 도구는 하혜숙(2000)이 개발한 학과(학부)만족 도구 31 문항 중 18문항, 성정체감 도구는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 성역할 검사(KSRI) 60문항 중 40문항, 성고정관념 도구는 김동일(1993)이 개발한 성고정관념 사정 도구 33문항을 사용하였다.

채택된 자료는 SPSS WIN. Program V. 11.5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가능점수 범위 1~5점 중 $3.73(\pm 0.53)$ 으로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정체감 유형 분포의 우선순위는 미분화 유형이 30명(32.0%)으로 가장 많았고, 양성성 유형 28명(29.8%), 남성성 유형 18명(19.1%), 여성성 유형 18명(19.1%) 순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 차이는 24세 미만 집단이 24세 이상 집단보다($t=2.194, p<.05$), 학제와 관련해서는 3년제 재학생 집단이 4년제 재학생 집단보다 더 전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418, p<.05$).
3.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과 전공만족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계수 $r=-.048(p=.648)$ 이었다. 하부요인별로 보면, 성고정관념이 높을수록 교과만족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r=.252, p<.05$), 특히 지적 성고정관념($r=.253, p<.05$), 심리적 성고정관념($r=.248, p<.05$), 가정적 성고정관념($r=.247, p<.05$)과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직업/외형적 성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207, p<.05$).
4.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적체감 유형에 따른 전공만족의 차이는 양성성 유형 3.94($\pm.34$), 남성성 유형 3.76($\pm.42$), 여성성 유형 3.70($\pm.67$), 미분화 유형 3.52($\pm.57$)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Scheffe's post hoc test 결과 양성성 유형군이 미분화 유형군보다 전공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25, p<.05$).
5.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적체감 유형에 따른 성고정관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성적체감은 미분화 유형이 가장 많았고, 양성성 유형군이 미분화 유형군보다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을 돕기 위하여 입학시부터 미분화 유형을 위한 특별지도 방안이 개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 직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실제로 간호직의 대부분이 여성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 각 분야에서 직업 인식에 대한 고정적 틀이 깨어지면서 여성의 성역으로 여겨지던 간호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남학생들의 입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약 270만 명의 간호사 중 5.4%인 14만 6천 902명이 남성으로 이는 20년 전의 2.7%에 비해 2배 늘어난 비율이며, 2000년 현재 미국의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은 8.3%이고, 전문대는 16.1%를 차지하고 있다(미국 보건부 간호국, 2000,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의 남자 간호사는 1939년 지금의 삼육 간호보건 대학의 전신이었던 경성 요양병원 부설 간호원 양성소를 졸업한 오봉명 이었고, 1972년까지 졸업한 남자 간호사의 수는 20여명에 이르렀다(대한간호, 2003. 9, 10월호).

간호학과에 남학생의 입학이 괄목할 만하게 증가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라고 할 수 있다. 1995년에는 25명에 불과하던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가 2000년에는 전국 간호교육 기관의 재학생 중 대학 과정 31개교 92명, 전문대학 과정 43개교 363명 등 총 455명으로 보고 되었고(Korean Nurses Association, 2001), 2003년에는 전국 간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남자간호대학생 수가 938명으로 조사되어, 이는 전국 간호교육기관 재학생 39,635명의 2.5%에 해당한다(전국 남자 간호대학생 협의회, 2003).

또한 대한 간호협회가 발표한 2002년 간호교육기관 졸업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졸업생 11,097명중 남학생이 94명으로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0.85%(4년제 8명 0.34%, 3년제 86명 0.98%)이다. 이는 5년 전 8명과 10년 전 5명(0.08%)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이고, 또 가장 졸업생이 많았던 2001년의 45명(0.41%)보다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건강 증진을 강조하는 건강 개념의 변화에 따라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자본주의적 사고와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려하게 되는 배경에 연유된다고 본다. 취업이 쉽고 높은 보수가 보장되며 상대적으로 남성이 소수를 차지하는 분야에 도전하면 그 분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승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간호학을 지원하는 남학생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Boughn, 2001).

이러한 변화는 남자 간호사들은 일단 간호직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전문화된 간호영역에서의 남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보다 요구되기 때문이다(Evans, 1997).

남자 간호사들 자신은 타인에게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직장에서 느낄 수 없는 정서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간호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Mason, 1991), 간호직을 선택한 남성들에 대한 견해는 남성자체가 여성스럽고, 동성애적(Haywood, 1994)이라는 편견이 내재되어 있었고, 특히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역할 이전에 남성,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에 충실한 것이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로 간주되어왔다(정자환 등, 1997).

이러한 점에서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학교생활 과정에서 소수집단이라는 특성과 기존의 성고정관념을 넘어서 간호학 전공에 만족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인간의 특정 상황에서의 적응은 자신의 성정체감이 행동 기준의 근간으로 작용되므로 남학생들이 여성이 주류를 이루는 간호학부 과정에서 행

동의 기준이 되는 성정체감의 영향으로 혼돈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선행연구들에서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남학생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배제된 규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Auster, 1979; Schoenmaker), 임상 실습시 성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자 환자에 대한 간호시 성역할 긴장을 경험할 수 있다(Streubert, 1994).

우리나라의 남자 간호대학생들도 이러한 성고정관념 및 여학생 중심의 환경과 관련하여 많은 심리적 갈등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최선주, 2002).

그러나 간호학을 전공하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성정체감이나, 성고정관념과 같은 내재적 요인과 간호학 전공만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그들의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전공만족도를 높이도록 돕기 위하여 관련 요인으로 추정되는 성정체감이나 성고정관념과 전공만족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성정체감과 성고정관념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해봄으로써,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강한 한국 문화 속에서 소수 집단으로 생활하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간호교과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성정체감 및 성고정관념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성정체감, 성고정관념을 파악한다.

둘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과 전공만족의 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에 따른 전공만족의 차이를 규명한다.

넷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고정관념의 차이를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전공 만족 (Satisfaction in major)

전공 만족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감정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인지적 측면으로, 전자는 개인이 소속한 전공학과에 대하여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즐거운 정도이고, 후자는 자신 또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달성되었음을 지각하는 정도이다(Veenhoven, 1991).

본 연구에서의 전공만족은 하혜숙(2000)이 작성한 34개 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학과(학부)만족 도구 중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성정체감(gender identity)

성정체감은 개인이 얼마만큼 남성적 내지 여성적 특성을 가졌는가를 인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성을 내재화한 개념이다(Kagan, 1964).

성정체감 유형으로 남성성 유형, 여성성 유형, 양성성 유형, 미분화성 유형으로 구분된다.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 성역할 검사(KSRI)중 남성성 20문항, 여성성 20문항, 총 40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남성성 유형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권 안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성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성격 특성, 행동 양식 및 가치를 내면화시킨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개인의 남성성 점수가 전체 조사 대상자보다 높고 여성성 문항에 대한 점수는 전체 조사대상자 평균과 같거나 이보다 낮은 경우 남성성 유형임을 의미한다.

(2) 여성성 유형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권 안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적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성격 특성, 행동양식 및 가치를 내면화시킨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 문항 20개에 대한 개인의 점수가 조사대상자 전체 평균보다 높고, 남성성 문항 20개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전체 평균과 같거나 이보다 낮은 경우 여성성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3) 양성성 유형

인간의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한 개인 안에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고, 이 두 특성이 모두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 문항 20개와 여성성 문항 20개에 대한 개인의 점수가 조사대상자 전체의 남성성 점수 평균과 여성성 점수 평균보다 각각 높은 경우 양성성 유형으로 보았다.

(4) 미분화 유형

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모두 낮게 내면화시킨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조사 대상자 평균과 같거나 낮게 나타난 경우를 의미한다.

3) 성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

성고정관념이란 많은 사람들이 성에 따라 다르다고 믿는 전형적인 특성을 의미한다(Deaux, 1976).

본 연구에서는 김동일(1993)이 작성한 33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전공 만족 (Satisfaction in major)

전공만족은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며 인지, 감정들의 복합체이며, 개인이 속한 전공학과 내에서의 행동은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전공에 대한 만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유쾌한 감정적 상태를 뜻하며, 태도, 가치, 신념 및 욕구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접근을 바탕으로 전공만족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뒷받침되거나 수정되어야 하겠지만, 전공만족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전공만족에 대한 평가는 Veenhoven(1991)이 정의한 인생만족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한데, 첫째는 감정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인지적 측면으로, 전자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전공에 대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즐거운 정도이고, 후자는 자신 또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달성되었음을 지각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고자 한다. 즉, 전공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 자신이 현재 소속된 전공 영역이 자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은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공만족이란 자신의 기대와 진로나 직업준거 집단과의 비교 등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기대와 진로나 직업준거 집단에 대

한 판단은 사회적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하혜숙, 2000).

전공 만족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변인으로 역할 갈등과 관련된 개념인 생애의 이상(central life interests)은 개인의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개인이 어떤 특정한 활동분야를 선택해서 그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거기에 몰두하는 태도와 깊이 관련된다. 현재 주어진 개인의 역할, 특히 어떤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생애의 이상과 일치한다면 그는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겠지만, 만일 불일치한다면 그는 역할갈등을 겪을 것이다. 생애의 이상은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에 대해서도 유의한 예언변인이라는 보고가 있다(장대운, 1986).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은 대부분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성별, 학업성적, 적성, 지능, 재능과 같은 개인적 요인 외에도 부모나 교사의 영향, 사회계층배경, 교육제도, 산업구조 등 외부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이해된다.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그들의 진로인식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 생활 자체가 전공 영역별로 되어 있고 전공은 대체로 장래의 진로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다(임용수, 1993).

또한 전공과 진로의 결정에 대한 타협과정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는 문제도 전공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자신의 미래 직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직업과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과정은 진로인사결정은 물론 전공 만족에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Gati, 1993). 특히 직업세계의 변화가 더욱 심화되고 개인들의 진로기대수준은 점점 향상되어 가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타협의 과정은 전공만족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대학생의 전공만족에 관한 외국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raskamp, Wise & Hengstler(1979)는 Illinois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이용한 연구로 대학생들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이 전공 영역의 교육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과 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의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첫째, 학과에 대한 만족의 요인구조가 학과 및 학년에 관계 없이 안정되어 있으며, 둘째,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들 예컨대 성별, 전공별 성적에 따라 요인별 전공만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셋째, 교수와 관련된 변인들, 예를 들어 연령, 연구실적 등에 따라 학생들의 전공만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Derry & Braskamp 등(1979)과 비슷한 연구절차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을 일반요인, 학업요인, 교수요인의 세 개의 구성요인으로 분석해 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외국 연구 결과와는 약간 성격이 다른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동진 등 (1985)의 연구에서 Braskamp등(1979)이 사용한 도구를 번안해서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세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요인들은 첫째, 전공학과에서 다루어지는 혹은 학습하는 내용의 지적 수준에 관한 요인, 둘째 교수-학생간의 정의적 관계와 관련된 요인, 셋째 전공 학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관련된 요인이다.

장대운 등(1986)은 기대수준, 역할 갈등의 정도, 전공만족 등의 요인이 성적, 적성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전공-적성 불일치 대학생의 전공학과 적응지도의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은 ‘전공의 교과에 대한 만족’, ‘교수-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전공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 대학생들과 미국의 대학생들 간의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문화적 영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전공만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김계현(1995)은 전공 및 학업태도에 관한 변인에서 전공 선택의 불만, 전과의 희망도, 진로의 확실성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고, 박병량 등(1991), 이민규(1994), 이수원 등(1986)의 연구에서 계열 및 학과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김재은 등(1997)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각 영역별 만족의 평균치를 낸 결과 학업생활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만족이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 예·체능계열과 의·약학계열 그리고 법과계열 순으로 만족이 높았다. 이러한 전공계열별 만족은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의 전문성을 지닌 전공계열과, 입학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되어지는 전공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인문 계열과 자연계열, 그리고 가정계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하혜숙(2000)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 만족에는 교과 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 만족 의 4가지 하위영역이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의 결과에서 전공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도인 일반만족과 인식만족은 상관이 가장 높았다. 이는 Braskamp 등(1979)의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일반요인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만족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공만족 요인별로 단과대학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과만족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법대가 가장 높고, 의대가 가장 낮으며, 그 외에 공대와 사범대 순으로 교과만족의 평균이 낮음을 알 수 있다(하혜숙, 2000).

일반 만족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의대가 가장 낮고 농대와 공대 순으로 일반 만족이 낮게 나타났으며, 법대가 가장 높았다. 지방대학에서는 농대

와 인문대가 가장 낮았고, 법대의 일반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만족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은 농과 대학이 가장 낮고 생활과학대학과 사범대가 평균적으로 낮았으며, 법대가 인식만족이 가장 높으며 그 외에 경영대와 의대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혜숙, 2000).

전공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공만족이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의 결과이며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감정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전공 만족이란 전공 교과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과 개인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성정체감 (Gender identity)

성정체감은 개인이 얼마만큼 남성적 내지 여성적 특성을 가졌는가를 인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성을 내재화한 개념이다(Kagan, 1964). 임정빈(1997)은 성정체감은 특정한 성별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고정 관념화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로서 사회가 각 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특성이나 태도 또는 흥미를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한 사람이 얼마만큼 자신이 남성적 또는 여성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는가 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재연(1983)은 성정체감이란 개인이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 내지 여성적 특성을 가졌는가를 가늠하는 정도라고 했으며, 정진경(1987)은 각 개인에 의해 성역할 행동이 습득되어, 행동에 반영되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의 정도와 형태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러한 성정체감은 사회의 역할 규정과 개인의

역할 수행 사이의 연결을 이어주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개인은 자신의 성을 확인하고 판별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의 성역할을 습득하게 되며, 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두 가지 형태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게 된다(김영희, 1989).

성고정관념이 사회적으로 고정화된 성역할 정형화(sex-roletyping)와 관련이 깊은 개념인 반면, 성정체감은 특히 개인에게 성역할 정형화의 과정을 지나 성역할 사회화의 과정에서 생물학적인 성 외에 자신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성역할을 내재화하는 개념을 일컫는 것이다(채현수, 1999).

‘나는 남자이다’, 혹은 ‘나는 여자이다’라는 생물학적 성의 인식과 수용으로부터 시작된 성정체감은 성역할 발달의 결과로서 자가지각이 증대되는 아동 후기 및 청소년기에 이르러 구체화되기 시작한다(유가효, 1994).

성정체감의 형성을 설명하는 전통적 이론들은 모두 아동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정형화가 바람직하다는 기본 전제에서 전개 되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양성성 모델은 성인기까지 확대한 전 생애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생물학적이고 전통적인 시각으로 인간을 분류하고 제한에서 벗어나 인간의 새로운 적응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사회적 변인과 심리 특성과의 관련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김문주 외, 1998). 또한 양성성과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성의 개념적 유형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분석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양성성 이론은 성정형화에서 탈피하여 양성성을 갖는 것이 발달된 성정체감 단계라는 관점이다.

양성적 시각에서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도 변하며, 남녀의 성역할도 이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Bem, Sandra, L., 1975; Spence, J. T., Helmreich, R., & Stapp, J. 1975). 따라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 내에서 정의 내려진 것으로 남녀의 실제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성고정관념적 특성을 지칭하는 추상적인 것이다. 이는 각 성에게 전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특성이다.

이러한 성정형적인 특성으로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개념은 Bakan(1966)과 Parsons와 Bales(1955)이 제안한 이분법적 분류로 설명될 수 있다(Spenc, J. T, Helmreich, R., & Stapp, J. 1975). Bakan(1966)은 남성성이 행위주체성 (agency)과 일치하여 자기보호, 자기주장, 자기확장, 독립성, 지배성 등의 개인의 진보와 관련된다고 하였고, 비계약적 협동 등의 상호 관계적 특질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Parsons와 Bales(1955)는 남성성을 도구성이라 하여, 목표 지향적이며, 목적과 성취에 대한 인지적인 강조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여성성을 표현성이라 하여 지원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포함하여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근거로 하여 성정체감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양성성 유형은 남성성, 여성성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나는 사람들로 주장적이면서 온정적이고, 도구적이면서, 표현적이며,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이에 따른 혼합된 반응을 융통성 있게 표현하는 사람이며, 남성성 유형은 주장적이며,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성취를 이루려는 특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진 사람이며, 여성성 유형은 관계적이며, 표현적이고 양육적인 특성이 보다 강한 사람이며, 미분화형은 남성성, 여성성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덜 표현하고 지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Parsons & Bales, 1955).

전통적 입장에서의 성정체감 유형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양극 유형만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데 반해, 페미니즘 운동과 더불어 이러한 양극화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심리적 양성성의 개념이 새롭게 출현하게 되었다(임정빈,1997).

성정체감을 형성시키는 요인으로서는 개인 및 부모 요인, 심리적 요인, 행동

요인, 대인관계 요인 등으로 보고, 이들 요인과 성정체감과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연구들이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

김영희(1994)는 발달 단계가 높아질수록 자기 성에 알맞은 성정체감을 보이며, 여성의 성정체감이 더 빨리 성숙된다고 하였다. 장하경 등(1993)은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성정체감 유형은 미분화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주부는 양성성 유형의 집단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또 Hansen(1979)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성 유형의 여성이 남성성 유형의 여성보다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성성 유형의 남성은 양친에게서 따뜻함을 더 많이 받았다.

아버지의 성정체감 유형과 자녀 양육 참여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양성성 유형이거나 여성성 유형인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가 높았으며(박문학, 1989; 이행옥, 1988), 아내가 여성성 유형의 성정체감을 가진 경우에는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Russell, 1978).

성정체감은 개인의 자존감과도 관계된다. Spence(1975)는 양성성 유형의 남성이나 여성의 자존감 수준이 가장 높았던 반면, 미분화된 사람의 자존감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남성성 유형인 사람과 여성성 유형인 사람의 자존감은 그 중간이었는데 남성성 유형인 사람의 자존감이 여성성 유형의 자존감보다 더 높았다고 하였다.

Bem(1976)은 양성성 유형의 사람과 남성성 유형인 사람이 사회적 압력에 덜 순응하였고, 자기 반응을 있는 그대로 주장하였으며, 대인관계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부관계와 성정체감 유형과의 연구에서도 부부 모두 양성성 정체감은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고정관념적인 성정체감을 가진 부부는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서로 상대에게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Hansen, 197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정체감이란 인간의 생물학적인 성 구별과는

다른 사회가 규정하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에 대한 주관적 동일시를 통해 구분되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얼마만큼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를 인식하고 내재화한다고 할 수 있겠다.

3. 성고정관념 (Gender stereotypes)

성고정관념이란 특정한 인간집단에 대해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지니는 상대적으로 경직되고 지나치게 단순화한 관념으로 특히 남녀의 성별에 따른 특징이나, 가치관, 역할에 대한 획일적인 사고를 의미한다. 이 개념에는 바로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포함된다(Wrightsmann, L., 1977). 일반적인 고정관념의 형성 기준은 인종, 지역, 종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성(性)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 것을 성고정관념이라고 한다. 성고정관념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 특성이 뚜렷한 실체인 것으로 착각 또는 오인하면서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저렇다고 획일적으로 규정해버리는 태도나 자세를 일컫는 말이다(김동일, 1991).

성고정관념적 사고에서는 동성 내에서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각 성의 신체적 동일성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빈번히 다른 어떤 정보가 없이도 개인에 대해서 일정한 가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즉, 남성,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어떤 개인을 묘사할 때 고정관념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성 고정관념은 그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성고정관념은 다른 고정관념과는 달리 남성이 높은 위치에서 항상 우월한 존재로 군림하게 해 왔으며, 여성에게는 낮은 위치에서

항상 열등한 존재로 남자에 예속되어 오게 하였다. 이러한 성고정관념은 여성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일종의 여성억압의 형태로 작용하여 남녀의 차이를 차별로 합리화시켜 성적 불평등 사회를 유지, 강화시키기도 한다(황은자, 1987).

이러한 성 고정관념에 입각한 성적 불평등은 평등을 표방하는 세계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뚜렷한 성차별의 사례가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성고정관념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아동기에는 주로 부모로부터의 모방이나 동일시 과정을 통하여 학습되며 점점 성장하면서 복잡한 학습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간다. 일단 학습된 편견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더욱 더 강화되어 심층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신세호, 권낙원, 1986).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아동은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러서 인지적으로 성숙하게 됨에 따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게 된다(Kohlberg, 1966). 현실적으로 아동이 고학년이 될수록 많은 문화적 성고정관념을 경험하게 되는데도 성고정관념의 정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은 아동의 인지적인 분류 능력이 보다 세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하여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면 인지적으로 남녀 모두 한층 더 융통성 있는 성고정관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한편 모든 연령집단을 통해서 여전히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이 확산되어 있으며 핵심적인 특성은 매우 안정적이라는 주장도 있다(Bussey & Bandura, 1992). 오히려 아동은 더 나이가 많아지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며 고정관념적인 지식의 넓이를 확대하게 된다(Martin, 1989).

또한 개인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고정관념을 인정하게 되며 성에 따라 사회가 알맞다고 규정하는 태도에 근거해서 사회가 기대하는 바에 맞추어 행동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어떤 활동이나 역할이 특정 성(性)에 구애 없이 남녀를 비교하게 될 수 있는 것임을 인지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

로 남녀를 비교하게 될 때는 여전히 사회적 관례를 반영하여 성고정관념과 부합되는 반응을 하기 쉽다(Turiel, 1985). 따라서 사회적 관례에 대한 동조반응으로서 성고정관념은 인지적 발달 수준과는 상당히 독립적으로 성인기에 조차도 벗어나기 힘든 사회문화적 제약으로서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된다(김문주, 1998).

초, 중, 고등학생의 성고정관념과 성정체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성고정관념의 획득과 발달에서 남녀의 성차가 나타나고 있고, 남학생은 남성성 유형이, 여학생은 여성성 유형이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 남학생의 성고정관념이 여학생보다 높았지만, 남성성유형의 여학생과 여성성유형의 남학생에서 성고정관념이 낮았다(유가호, 1994).

채현수(1999)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고정관념이 높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의 증가와 함께 성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소년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정적인 성고정관념을 가진다는 선행연구(Shepard & Hess, 1975; Garrett, Ein & Tremaine, 1977)와 일치하는 것이다.

성고정관념과 성정체감 유형의 관계는 박영숙(1998)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채현수(1999)의 연구에서는 성고정관념과 남성성, 여성성의 정적 상관을 보여 성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양성성 유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성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양성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가장 완화된 성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인례,1990; 조인선, 1986; Bern,1981; Block, 1973; Kelly & Worrell, 1977)으로 보는 견해와 달리 위의 결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고정관념과 성정체감 유형의 관계에 다른 변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희정(1986)은 직업의 성고정관념과 성정체감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고정관념이 더 강하고 성정체감은 남학생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여학생의 직업선택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 직업선택을 예언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변인은 성별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박유정(2000)의 연구에서는 성고정관념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연령집단이 낮은 연령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중심인 사회에서 여자는 진보적인 태도를, 남자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남녀 각자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약하면, 성고정관념은 개인의 역할에 대한 특성을 묘사할 때 성별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짓는 행위나, 태도를 의미하여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학습과정을 통해 형성된 편견이나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의사결정과 같은 중요 행동양식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이 고찰되었다.

1) 성별에 따른 직업 고정관념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신념과 성에 따른 역할 구분은 직업 활동의 구분에도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온정적인 것으로 지각되고, 반면, 두뇌를 많이 활용하는 전문직 및 기술직은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진다(Elkin, F., & G. Handel 1978).

특히 대부분의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속하는 직업과 활동들은 대부분 남자에 의해서 점유되어 왔으며, 남성적 직업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Stephan, C. W., & C. K. Holahan 1982).

이처럼 직업은 성별에 의해 수평적·수직적으로 분절되어 있으며, 여성들은 소위 ‘여성직업’이라 불리는 좁은 범위의 일에 한정되어 있고, 그 직업내에서도 낮은 기술 및 지식, 책임이 적고 봉급이 낮은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다

(Hakim, C. 1979).

직업과 성고정관념의 연구로 미국에서 3세에서 6세의 중류 계층의 백인 아동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을 조사한 결과, 희망하는 직업의 종류에 성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남아가 경찰, 운동선수 같은 모험적 직업을 선택하는 데 반해 여아는 간호사와 같은 정적인 직업을 선택하였다(Beuf, S. L. 1974).

우리나라에서 황은자는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남녀에게 적합한 직업을 물은 결과, 남성적인 직업으로는 군장교 및 경찰관, 회사경영인, 의사, 조종사 등이 높게 지적된 반면, 여성적인 직업으로는 간호사, 비서, 가정부, 스튜어디스 등이 높게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일의 성격상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직업은 남성적인 직업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여성적인 일은 보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직업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황은자, 1987).

요약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직업에 따른 성구분이 존재해 왔고, 직업에 대한 개인의 성고정관념은 어린시절부터 가정이나 사회가 남녀에게 기대하는 보편적 역할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2) 간호전문직에서의 성고정관념

간호가 여성의 직업으로 성정형화되기 시작한 것은 고대로부터 어머니나 부인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여집사나 수녀들이 주로 담당해 오면서부터이다. 그러나 간호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간호사가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중세에 있었던 십자군 운동시에 조직된 군사 간호단도 남자들로 구성된 특수 유형의 간호단으로서 후일 간호사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김문실 등, 1998).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간호에 대한 이미지는 여성의 일이라는

직업적 성고정관념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한 성고정관념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여성간호사 스스로와 의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성간호사들은 간호를 자신의 고유 영역을 여기고 방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Silver & McAtee, 1972), 의사들 중에서도 남자간호사를 열등한 존재로 폄하한다(Turnipseed, 1986).

또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임상 실습 지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정형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여자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실습시 남녀 환자에 대한 성구분을 하지 않고 배치하는 반면, 남자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주로 남자 환자에게 배치하거나, 신체적 힘이 필요한 부서로 배치시키며, 부인과 병동과 같은 부서는 실습에서 제외시키는 딜레마를 유발시키기도 한다(Turnipseed, 1986).

그러나 간호의 이미지가 여성성의 강조에서 벗어나야 함은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적인 간호사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 양성성의 유형 즉 남성의 특성과 여성의 특성을 모두 갖춘 사람이 이상적인 간호사라는 결과가 나왔다(Minnigerode, Kayser - Jones & Garcia, 1978). 또한 이러한 양성성 특성은 조직내에서의 적응과 융화, 특히 리더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남자 간호대학생은 사회의 왜곡된 성고정관념과 여학생 중심의 간호교육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남학생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배제된 규정에 대해 불만을 가진다(Auster, 1979; Schoenmaker & Radosevich, 1976).

요약하면, 간호가 여성의 이미지로 성정형화된 배경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과 남녀 역할에 대한 사회의 보편적 고정관념이 남자간호사나 남자 간호대학생과 같은 여성 주류의 분야에 속해 있는 남성들에게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성정체감·성고정관념의 관계」라는 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고 성정체감과 성고정관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통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전국 3·4년제 간호교육 기관 113개 중 남자 간호대학생이 재학 중인 74(65%)개 간호교육 기관을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 추출한 94명이다. 비교적 많은 남학생이 재학 중인 서울 소재 4개 간호대학의 23명, 지방소재 16개 대학의 114명, 총 20개 대학, 1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연구에 참여한 102명에게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내용이 부실거나, 무성의한 8표본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총 94명을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표본 학교수와 남자 간호대학생수는 <표 1>과 같다.

<표 1> 남자 간호대학생 표본추출

지역	접근 학교수	참여 학교수	접근 남자 간호대학생수	참여 남자 간호대학생수	유용한 자료수(%)
서울	4	4	23	22	19(20)
지방	16	16	114	80	75(80)
합계	20	20	137	102	94(100)

3. 연구 도구

1) 전공만족

하혜숙(2000)이 작성한 34개 문항의 학과(학부)만족 도구 중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최저 1점에서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혜숙(2000)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hronbach's α .92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만족과 인식만족이 각각 .89, 관계만족이 .76, 교과만족이 .7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hronbach's α 가 .90, 일반만족 .89, 인식만족 .84, 교과만족 .78, 관계만족 .76으로 신뢰도가 높았다.

2) 성정체감

정진경(1990)의 한국 성역할 검사(KSRI)의 60문항 중 여성성 문항 20개와 남성성 문항 20개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남성성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홀수번호의 형용사 20개, 여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짝수번호의 형용사 20개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사이이다.

남성성 점수가 평균보다 높고 여성성 점수가 평균과 같거나 이보다 낮으면 남성성 유형으로, 여성성 점수가 평균보다 높으면서 남성성 점수는 평균과 같

거나 이보다 낮으면 여성성 유형으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두 평균보다 높으면 양성성 유형으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평균보다 낮거나 같으면 미분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박유정(2000)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남성성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hronbach's α .89, 여성성 문항은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이 .78, 여성성이 .83으로 나타났다.

3) 성고정관념

김동일(1993)이 작성한 성고정관념 검사 33문항을 사용하였다. 성고정관념의 하위요인으로 '가정적 성고정관념', '사회적 성고정관념', '직업/외형적 성고정관념', '심리적 성고정관념', '지적 성고정관념'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사이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동일(199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70~.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으며, 하부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정적 성고정관념이 .69, 사회적 성고정관념이 .78, 직업/외형적 성고정관념 .74, 심리적 성고정관념 과 지적 성고정관념이 각각 .87, .79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도구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도구의 구성

도구	문항	문항수	문항구분	Chronbach' α
일반적 특성	개인특성	12	1~12	
전공만족	일반만족	6	1~6	.89
	인식만족	6	7~12	.76
	교과만족	3	13~15	.84
	관계만족	3	16~18	.78
			전체	.90
성정체감	남성성	20	홀수문항	.78
	여성성	20	짝수문항	.83
			전체	.84
성고정관념	가정적 성고정관념	7	1~7	.69
	사회적 성고정관념	5	8~12	.78
	직업/외형적 성고정관념	9	13~21	.74
	심리적 성고정관념	7	22~28	.87
	지적 성고정관념	5	29~33	.79
			전체	.88
계		103		

4.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03년 10월 4일부터 2004년 4월 15일까지 자가보고와 우편법으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남자 간호사협회」 및 「남자간호대학생 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학교 명단 및 회원 명부를 입수하였고, 「남자 간호대학생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각 대학의 남학생 대표 1인에게 전화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였다. 비교적 남학생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서울 소재 간호대학 4곳과 지방소재 간호대학 7곳은 각 대학의 남학생 대표를 통해 재학생 수를 파악하고 재학생 수에 맞는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75부를 배부하여 71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4%), 강원 지역 9개 대학에 재학중인 62명은 E-mail을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여 31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50%). 회수된 질문지 102부 중 검사문항이 누락되었거나 무성의한 질문지 8부를 제외하고 최종 9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수의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지의 회수율이 높았던 이유는 남자간호대학생 협의회 대표의 노력과 각 대학 남학생 대표의 책임 있는 협조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성정체감·성고정관념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가보고식 질문지에 의해 최종 채택된 94부의 자료를 SPSS WIN Program V. 11.5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 1)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전공만족, 성정체감, 성고정관념은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2)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 3)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과 전공만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Pearson's Correlation)분석을 실시하였다.
- 4)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에 따른 전공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일원변량 분석 결과 집단간의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s post hoc test를 실시하였다.
- 5) 성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고정관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는 24세 미만이 66명(70.2%), 24세 이상이 28명(29.8%)이었고, 대상자중 50명(53.2%)이 3년제 간호대학에 재학하고 있었고, 44명(46.8%)은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학년 상태는 1학년이 41명(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21명(22.3%), 3학년 20명(21.3%), 4학년 8명(8.5%), 휴학생 4명(4.3%) 순이었다.

병역 여부는 군필한 학생이 37명(39.4%), 군 미필한 학생이 51명(54.3%), 나머지 군 면제를 받은 학생이 6명(6.4%)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47명(50%)이 본인의 의지라고 답변하였고, 가족의 권유 23명(24.5%), 취업용이 13명(13.8%), 직업적 매력 5명(5.3%), 기타 사유 5명(5.3%)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 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여학우와의 관계라고 답한 학생이 40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학과 수업의 어려움이 36명(38.3%), 실습의 어려움이 3명(3.2%), 주위의 시선이라는 응답이 4명(4.3%), 그 밖의 기타 응답이 11명(11.7%)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경제적 상태를 묻는 질문에 자신의 경제적 상태가 중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47명(50%)으로 가장 많았고, 중상층이 41명(43.6%),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4명(4.3%), 상층이라고 답한 학생이 2명(2.1%)로 나타났다.

과거 또는 현재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60명(63.8%)이었고, 그렇지 않다가 34명(36.2%)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가족 중 여자 형제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58명(61.7%)이 있다고 응답했고, 36명(38.3%)은 없다고 응답했으며,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가운데, 여자형제가 1명이 38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명이 12명(12.8%), 나머지 3명 이상이 8명(8.5%)으로 나타났다.

종교 상태는 무교가 43명(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가 26명(27.7%), 불교 15명(16.0%), 천주교 9명(9.6%), 기타 1명(1.1%)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가족 중 간호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이 74명(78.7%)으로 있다라고 응답한 20명(21.3%)보다 많았다.

요약하면, 본 연구 대상자의 나이는 19~23세가 66명(70.2%), 병역사항은 미필이 57명(60.7%)이었고, 60명(63.8%)이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경험했고, 20명(21.3%)이 가족 중 간호사가 있는 특성을 지닌 집단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N=94)

특성	구분	인수(%)
나이	19~23세	66(70.2)
	24세 이상	28(29.8)
학제	4년제	44(46.8)
	3년제	50(53.2)
진학동기	본인의 의지	47(50)
	주변의 영향	47(50)
학년	신입생	41(43.6)
	2학년 이상	53(56.4)
종교	유	51(54.3)
	무	43(45.7)
병역	군필	37(39.3)
	미필	57(60.7)
애로사항	여학우와의 관계	40(42.6)
	학과수업 및 주위의 시선	54(57.4)
생활계층	중상층 이상	43(45.7)
	중하층 이하	51(54.3)
어머니 직장생활 유무	유	60(63.8)
	무	34(36.2)
가족중 간호사 유무	유	20(21.3)
	무	74(78.7)
가족중 여자형제 유무	유	58(61.7)
	무	36(38.3)

2.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분포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분포를 보면 94명을 대상으로 간호학 전공에 만족하는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59.3%(56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만족의 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식만족이 74.9%(70명)로 가장 높았고, 일반만족 70.6%(67명), 관계만족 55.3%(52명), 교과만족 36.2%(34명)순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분포 %(인수), (N=94)

문항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SD)
인식 만족	전공을 자랑스러워함	29.8(28)	44.7(42)	20.2(19)	3.2(3)	2.1(2)	3.96(±.90)
	인기학과라고 생각함	33.0(31)	45.7(43)	12.8(12)	4.3(4)	4.3(4)	3.98(±1.0)
	내학과에 오고싶어함	21.3(20)	38.3(36)	28.7(27)	7.4(7)	4.3(4)	3.64(±1.0)
	졸업후 사회생활에 유리함	22.3(21)	51.1(48)	21.3(20)	4.3(4)	1.1(1)	3.89(±.83)
	부모님 내 전공에 만족함	36.2(34)	40.4(38)	19.1(18)	4.3(4)	0	4.08(±.85)
	졸업후 진로에 도움됨	48.9(46)	38.3(36)	10.6(10)	2.1(2)	0	4.34(±.75)
	소계	31.9(30)	43.0(40)	18.8(18)	4.3(4)	2.0(2)	3.99(±.74)
일반 만족	교육내용에 흥미있음	20.2(19)	48.9(46)	25.5(24)	3.2(3)	2.1(2)	3.81(±.86)
	교과목이 나와 맞음	11.7(11)	39.4(37)	38.3(36)	6.4(6)	4.3(4)	3.47(±.93)
	다닐만한 학과임	17.0(16)	53.2(50)	26.6(25)	2.1(2)	1.1(1)	3.82(±.77)
	전공에 만족함	21.3(20)	52.1(49)	21.3(20)	4.3(4)	1.1(1)	3.88(±.82)
	가치있는 것 배움	25.5(24)	56.4(53)	16.0(15)	1.1(1)	1.1(1)	4.04(±.74)
	전공도서는 배울만함	17.0(16)	60.6(57)	17.0(16)	4.3(4)	1.1(1)	3.88(±.77)
	소계	18.8(18)	51.8(49)	24.1(23)	3.6(3)	1.8(2)	3.84(±.69)
관계 만족	교수님 조언들을 수 있음	6.4(6)	43.6(41)	33.0(31)	13.8(13)	3.2(3)	3.36(±.91)
	원하면 교수님 만날 수 있음	27.7(26)	46.8(44)	19.1(18)	4.3(4)	2.1(2)	3.93(±.91)
	학생, 교수간 의사소통 원활함.	8.5(8)	33.0(31)	44.7(42)	10.6(10)	3.2(3)	3.32(±.89)
	소계	14.2(13)	41.1(39)	32.3(30)	9.6(9)	2.8(3)	3.54(±.74)
교과 만족	교수님은 목표있고, 쉽게 설명함	5.3(5)	41.5(39)	40.4(38)	11.7(11)	1.1(1)	3.38(±.80)
	시험은 적절하고 공부에 도움됨	4.3(4)	31.9(30)	36.2(34)	21.3(20)	6.4(6)	3.06(±.98)
	전공심화 기회 적절히 주어짐	2.1(2)	23.4(22)	45.7(43)	22.3(21)	6.4(6)	2.92(±.89)
	소계	3.9(4)	32.3(30)	40.8(38)	18.4(17)	4.6(4)	3.12(±.74)
	합계	17.2(16)	42.1(40)	29.0(27)	9.0(8)	2.7(3)	3.73(±.53)

전공 만족의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전체 전공만족은 득점 가능한 점수 1~5점 중 평균은 3.73(±.53)이었으며, 하부 요인별로는 인식만족에 대한 평균이 3.99(±.74)로 전공만족의 하부 요인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반만족의 평균 3.84(±.69), 관계만족의 평균 3.54(±.74), 교과만족의 평균 3.12(±.74)순으로 나타났다.

3. 남자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을 분류한 결과 남성성, 여성성의 득점 가능한 점수 1~5점 중 남성성 점수의 평균 3.42(±.57)와 여성성 점수의 평균 3.40(±.39)을 준거로 하여 각 개인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이보다 높거나, 낮은가를 구분하여 응답자들의 성정체감을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미분화가 30명(32.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양성성이 28명(29.8%), 그리고 여성성과 남성성 유형이 각각 18명(19.1%)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 (N=94)

유형	여성성 점수	남성성 점수
남성성	≤3.40	>3.42
여성성	>3.40	≤3.42
양성성	>3.40	>3.42
미분화	≤3.40	≤3.42

4.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 정도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은 득점 가능한 점수 1~5점 중 평균 2.74(±.4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적 성고정관념의 평균이 2.9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직업/외형적 성고정관념의 평균 2.91(±.60), 심리적 성고정관념의 평균 2.79(±.72), 지적 성고정관념의 평균 2.73(±.75), 그리고 사회적 성고정관념의 평균 2.05(±.58)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남자 간호대학생의 하부요인별 성고정관념의 평균은 아래 <표 6>와 같다.

<표 6>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 정도 (N=94)

하부요인	평균 (SD)
가정적 성고정관념	2.97 (±.67)
사회적 성고정관념	2.05 (±.58)
직업/외형적 성고정관념	2.91 (±.60)
심리적 성고정관념	2.73 (±.72)
지적 성고정관념	2.73 (±.75)
전체	2.74 (±.45)

5.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전공만족의 차이는 나이에 있어서는 24세 미만 집단의 전체 전공만족 평균이 3.80(±.53)으로 24세 이상 집단의 평균 3.55(±.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2.194$, $p<.05$), 학제와 관련해서는 3년제 집단의 전체 전공만족 평균이 3.85(±.47)로 4년제 집단의 평균 3.59(±.55)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18$, $p<.05$).

하부요인별로 보면 일반만족은 진학동기가 본인의지 집단의 평균이 3.98(±.61) 주변의 영향 집단의 평균 3.69(±.67)보다 높았다($t=2.165$, $p<.05$).

인식만족은 3년제 집단의 평균이 4.18(±.70)로 4년제 집단의 평균 3.77(±.70)보다 높았고($t=2.845$, $p<.01$), 1학년 집단의 평균이 4.18(±.70)로 2학년 이상 집단의 평균 3.84(±.71)보다 높았다($t=2.321$, $p<.05$).

교과만족은 24세 미만 집단의 평균이 3.23(±.75)으로 24세 이상 집단의 평균 2.86(±.68)보다 높았고($t=2.198$, $p<.05$), 1학년 집단의 평균이 3.36(±.61)으로 2학년 이상 집단의 평균 2.93(±.79)보다 높았으며($t=2.861$, $p<.01$), 어머니가 직장 경험 없는 집단의 평균이 3.38(±.68)로 어머니가 직장경험 있는 집단의 평균 2.97(±.74)보다 높았다($t=-2.597$, $p<.05$).

관계만족은 24세 미만의 집단의 평균이 3.68(±.69)로 24세 이상 집단의 평균 3.21(±.77)보다 높았고($t=2.879$, $p<.05$), 3년제 집단의 평균이 3.69(±.67)로 4년제 집단의 평균 3.37(±.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23$, $p<.05$).

<표 7>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 (N=94)

일반적 특성	구분 (인수)	일반만족 M±SD	인식만족 M±SD	교과만족 M±SD	관계만족 M±SD	전체전공만족 M±SD
나이	24세 미만(66)	3.85±.72	4.06±.70	3.23±.75	3.68±.69	3.80(±.53)
	24세 이상(28)	3.80±.49	3.80±.69	2.86±.68	3.21±.77	3.55(±.47)
	t	.356	1.654	2.198*	2.879*	2.194*
학제	3년제(50)	3.93±.67	4.18±.70	3.28±.64	3.69±.67	3.85(±.47)
	4년제(44)	3.74±.63	3.77±.65	2.93±.82	3.37±.79	3.59(±.55)
	t	1.386	2.845**	2.298*	2.123*	2.418*
진학동기	본인의지(47)	3.98±.61	4.04±.76	3.12±.75	3.57±.80	3.79(±.56)
	주변 영향(47)	3.69±.67	3.93±.66	3.12±.74	3.51±.69	3.67(±.49)
	t	2.165*	.753	.046	.412	1.092
학년	1학년(41)	3.88±.71	4.18±.67	3.36±.61	3.70±.78	3.85(±.50)
	2학년이상(53)	3.80±.61	3.84±.71	2.93±.79	3.41±.70	3.63(±.53)
	t	.581	2.321*	2.861**	1.905	1.958
생활계층	중상층 이상(43)	3.94±.64	4.07±.66	3.03±.64	3.52±.72	3.76(±.48)
	중하층 이하(51)	3.75±.66	3.91±.74	3.20±.82	3.55±.77	3.70(±.56)
	t	1.403	1.099	-1.134	-.183	.480
종교	유(51)	3.85±.76	3.89±.78	3.03±.78	3.39±.80	3.68(±.58)
	무(43)	3.83±.51	4.10±.60	3.22±.69	3.72±.63	3.78(±.45)
	t	.133	-1.396	-1.202	-2.165	-.936
병역	군필(37)	3.90±.53	3.96±.61	3.07±.74	3.54±.84	3.76(±.49)
	미필 및 면제(57)	3.80±.73	4.00±.77	3.15±.75	3.53±.68	3.70(±.55)
	t	.709	-.262	-.542	.070	.547
애로사항	여학우 관계(40)	3.92±.63	3.91±.59	3.25±.76	3.58±.75	3.79(±.48)
	학과수업,주위시선(54)	3.78±.67	4.05±.78	3.03±.72	3.51±.74	3.68(±.56)
	t	1.078	-.957	1.412	.570	.977
어머니 직장경험	유(60)	3.83±.72	4.03±.73	2.97±.74	3.45±.70	3.68(±.53)
	무(34)	3.86±.53	3.91±.66	3.38±.68	3.69±.80	3.82(±.51)
	t	-.243	.757	-2.597*	-1.509	-1.213
가족중 간호사유무	유(20)	3.97±.44	4.15±.69	3.23±.63	3.56±.81	3.83(±.44)
	무(74)	3.80±.70	3.94±.71	3.09±.77	3.53±.73	3.70(±.55)
	t	1.033	1.126	.734	.162	.959
여자 형제유무	유(58)	3.82±.67	3.92±.76	3.10±.71	3.47±.73	3.67(±.53)
	무(36)	3.88±.63	4.10±.60	3.14±.81	3.65±.76	3.82(±.51)
	t	-.432	-1.169	-.244	-1.176	-1.395

*p<.05, **p<.01

6.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과 전공만족의 상관관계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과 전공만족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과 전공만족의 상관관계 (N=94)

요인	전체전공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전체 성고정관념	-.048	-.056	-.137	.252*	.048
가정적 성고정관념	.075	.090	.023	.247*	.025
사회적 성고정관념	-.116	-.041	-.175	.073	-.042
직업/외형적 성고정관념	-.207*	-.217*	-.200	.030	-.007
심리적 성고정관념	.145	.118	.043	.248*	.102
지적 성고정관념	-.087	-.148	-.200	.253*	.064

*p<.05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체 전공만족과 직업/외형적 성고정관념간에는 매우 낮은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07, p<.05$).

하부요인별로 보면, 일반만족은 직업/외형적 성고정관념과 매우 낮은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17, p<.05$).

교과만족은 전체 성고정관념과 낮은 정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252, p<.05$), 가정적 성고정관념($r=.247, p<.05$), 심리적 성고정관념($r=.248, p<.05$), 지적 성고정관념($r=.253, p<.05$)과도 낮은 정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에 따른 전공만족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네 집단의 전공만족도를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양성성 집단의 전공만족도가 1~5점 중 평균 3.94(±.34)로 남성성 집단의 평균 3.76(±.42)과 여성성 집단의 평균 3.70(±.67), 미분화 집단의 평균 3.52(±.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Scheffe's post-hoc test를 실시한 결과 양성성 유형의 집단이 미분화 유형의 집단에 비하여 전공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25, p<.025).

<표 9>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별 전공 만족 정도 (N=94)

변수	인수	평균 (SD)
남성성	18	3.76 (±.42)
여성성	18	3.70 (±.67)
양성성	28	3.94 (±.34)*a
미분화	30	3.52 (±.57)*b
합계	94	3.73 (±.53)

* Scheffé test, a>b, p< .05

<표 10>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별 전공만족 차이 (N=94)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내 변이	2.56	3	.83		
집단간 변이	23.62	90	.26	3.25	.025*
합계	26.19	93			

* p<.05

8.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고정관념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고정관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표 11>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별 성고정관념 정도 (N=94)

변수	인수	평균 (SD)
남성성	18	2.82 (±.47)
여성성	18	2.57 (±.41)
양성성	28	2.86 (±.50)
미분화	30	2.68 (±.38)
합계	94	2.74 (±.45)

<표 12>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별 성고정관념 차이 (N=94)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내 변이	1.108	3	.369	1.860	.142
집단간 변이	17.867	90	.199		
합계	18.975	93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고정관념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성 집단과 여성성 집단, 양성성 집단, 미분화 집단간의 전공 만족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V. 논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성 주류의 학문인 간호학을 전공하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성적체감, 전공만족과 성고정관념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성적체감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3.73(\pm 0.53)$ 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재은 등(1997)의 전공 계열별 만족을 조사한 연구에서 전공 계열별 만족은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의 전문성을 지닌 전공계열과, 입학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되어지는 전공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적체감 유형은 미분화 유형이 30명(32.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양성성 유형이 28명(29.8%)이었고, 남성성 유형 18명(19.1%)과 여성성 유형 18명(19.1%)이 같은 수로 가장 적었다. 이는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기로 갈수록 안정된 성적체감, 즉 양성성 유형이 많아진다는 선행연구(Shepard & Hess, 1975)와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청소년기를 지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모두 낮게 내면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체감 유형별 전공만족의 차이는 양성성 유형 집단의 대상자가 미분화 유형의 집단보다 더 전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25, p<.05$).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갖춘 양성적인 사람은 바람직한 남성성 반응과 바람직한 여성성 반응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심리구조 때문에 전통적 성역할 행동에 구속되지 않고 다양하게 행동할 수 있는 심리적 자유를 가지므로 단일 성역할 행동에 고정되어 제한을 받는 편협한 사

람보다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작용한다는 Bem(1977)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갖춘 남자 간호대학생의 경우 여성 다수의 간호학 전공에 잘 적응하고 전공만족도 높으나, 자존심이 낮으며 어떠한 행동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미분화 유형의 학생들의 경우 전공만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성고정관념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성고정관념은 2.74(±.4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녀의 사회적인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성고정관념이 2.05(±.58)로 가장 낮았고, 심리적 성고정관념이 2.73(±.72), 지적 성고정관념이 2.73(±.75)으로 같은 수준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직업/외형적 성고정관념이 2.91(±.60), 가장 높은 성고정관념을 보인 것은 가정에서의 남녀의 활동, 역할과 관련된 가정적 성고정관념 2.97(±.67)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의 남녀의 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 반해 사회활동 면에서는 남녀의 역할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직업/외형적 성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207, p<.05$), 이는 간호학이 여성의 학문이라는 성고정관념적 편견이 전공만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증가하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입학시부터 성정체감을 사정하고, 미분화 유형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들의 대학생활 중 갈등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려는 적극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미분화 유형의 남자 간호대학생에 대한 특별 지도 방안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간호교육 기관에 재학중인 남자 간호대학생 9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로서 그 목적을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성정체감 및 성고정관념을 파악하는 것, 성고정관념이 전공만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는 것, 성정체감 유형별 전공만족의 차이와 성정체감 유형별 성고정관념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에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19~23세군이 70.2%(66명), 3년제 학생이 53.2%(50명), 진학 동기는 자신의 의지가 50%(47명), 2학년 이상이 56.4%(53명)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대상의 특성은 19~23세군이 대다수인 젊은 연령 집단이었다.

2)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분포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분포를 보면 59.3%(56명)이 전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식만족이 74.9%(56명)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만족 70.9%(67명), 관계만족 55.2%(52명), 교과만족 36.2%(3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미분화 유형이 30명(32.0%)으로 가장 많았고, 양성성 유형이 28명(29.8%), 여성성 유형과 남성성 유형이 각각 18명(19.1%)으로 나타났다.

4)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 정도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 정도는 득점 가능한 범위 1~5점 중 평균 2.74(\pm .4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적 성고정관념이 2.97(\pm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직업/외형적 성고정관념 2.91(\pm .60), 심리적 성고정관념 2.79(\pm .72), 지적 성고정관념 2.73(\pm .75), 그리고 사회적 성고정관념 2.05(\pm .58)순으로 나타났다.

5)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의 차이는 24세 미만 집단이 24세 이상 집단보다($t=2.19$, $p<.05$), 학제와 관련해서는 3년제 재학생 집단이 4년제 재학생 집단보다 더 전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41$, $p<.05$).

하부 요인별로 보면 일반만족은 진학동기가 본인의 의지라고 답한 집단이 주변의 영향이라고 답한 집단보다 높았다($t=2.165$, $p<.05$).

인식만족은 3년제 집단이 4년제 집단보다 높았고($t=2.845$, $p<.01$), 1학년 집단이 2학년 이상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t=2.321$, $p<.05$).

교과만족은 24세 미만 집단이 24세 이상 집단보다 높았고($t=2.198$, $p<.05$), 1학년 집단이 2학년 이상 집단보다 높았으며($t=2.861$, $p<.01$), 어머니가 직장 경험이 없는 집단이 어머니가 직장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높았다($t=-2.597$, $p<.05$).

관계만족은 24세 미만의 집단이 24세 이상의 집단보다 높았고($t=2.879$,

$p < .05$), 3년제 집단이 4년제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123, p < .05$).

6)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과 전공만족의 관계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고정관념과 전공만족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계수 $r = -.048 (p = .648)$ 이었다. 하부요인별로 보면, 성고정관념이 높을수록 교과만족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r = .252, p < .05$), 특히 지적 성고정관념($r = .253, p < .05$), 심리적 성고정관념($r = .248, p < .05$), 가정적 성고정관념($r = .247, p < .05$)과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직업/외형적 성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 = -.207, p < .05$).

7)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에 따른 전공만족의 차이

성정체감 유형에 따른 전공만족의 우선순위는 득점 가능 범위 1~5점 중 양성성 집단이 평균 $3.94 (\pm .34)$ 로 가장 높았고, 남성성 집단의 평균 $3.76 (\pm .42)$, 여성성 집단의 평균 $3.70 (\pm .67)$, 미분화 집단의 평균 $3.52 (\pm .5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s post hoc test 결과 양성성 집단의 대상자가 미분화 집단에 비해 전공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25, p < .05$).

8)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고정관념의 차이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고정관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성정체감은 미분화 유형이 가장 많았고, 양성성 유형군이 미분화 유형군보다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을 돕기 위하여 입학시부터 미분화 유형을 위한 특별지도 방안이 개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 1) 남자 간호대학생의 입학시 성정체감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미분화 유형을 위한 특별 지도 방안이 계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3)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을 높이기 위한 양성평등화 커리큘럼의 개발이 필요하다.
- 4) 향후 남자 간호사나 남자 간호대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양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간협신보(2000). 남자간호사 급증 - 대약진 기대. 7월 20일. 1면
- 고봉희(2001).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적체감 유형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의 차이.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계현(1997). 상담심리학. 서울 : 학지사.
- 김계현, 김혜란, 손진희, 이상균, 이지수(1995). 서울대학생의 학업성취 과정. 학생연구, 30(1), 18~37.
- 김동일(1991). 한국인의 성 고정관념. 성의 사회학. 서울 : 문음사 73~102.
- 김문실 외(1998). 간호의 역사. 서울 : 대한간호협회.
- 김문주, 외(1998). 여성 심리학. 교육과학사.
- 김영희(1989). 한국청소년의 정체감 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영(1991). 한국인의 성고정관념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은, 이은순, 강순화(1997). 한국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서울: 집문당.
- 김희정(1986). 직업의 성고정관념과 성적체감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테마기획: 남자간호사, 대한간호, 9, 10월 225호
- 박문학(1989). 아버지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녀 양육 참여도와의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병량(1991). 대학생의 성취행동에 관련된 요인의 종단적 연구. 부산대학교 연구보, 제 26집. 부산 :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박영숙, 김영임, 박연환(1998).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고정관념에 대한 비교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 11(1), 51-63.

- 박유정(2000). 대학생의 성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의식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세호, 권낙원(1986), 한국인의 남녀 역할관, 서울 : 교육개발원, p. 103.
- 유가호(1994). 아동 및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과학 논문집 : 20, 51~64.
- 이민규(1994). 대학신입생의 입학성적과 학업수행에 대한 일 연구. 아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8, 39~55. 경기 : 아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수원, 장성수, 김재환(1986). 대학에서의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분석.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 4, 5~64. 서울 :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인례(1990).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연(1983). 여자대학생의 장래계획과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 존중감. 아세아 여성연구, Vol. 22. 9~10.
- 이행옥(1988).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용수(1993). 전공만족도를 중심으로 본 대학생들의 진로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9, 107~129.
- 임정빈, 정혜정(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 : 학지사.
- 장대운, 박현진, 나동진, 이영식(1986). 전공적성 불일치 대학생의 전공학과 적응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4, 1109~1154. 전북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 조인선(1998).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역할 태도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경(1987).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여성학, Vol. 3, 132~160.
- 정진경(1990). 한국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Vol. 5, 82~92.

- 채현수(1999). 중·고등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과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선주(2002). 여성주류 사회속의 남자간호대학생의 생활체험.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은자(1988). 성교육 담당교사의 성역할 고정관념적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M. L. (1983). Thinking about women: Sociological and feminist perspectives. New York: Macmillan.
- Auster, D.(1979). Sex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nursing education. J Nurs Edu, 18(6), 19~28.
- Bake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Chicago : Rand McNally.
- Bem, S.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34~643.
- Block, J. K.(1973). Conception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Boughn, S. (2001). Why women and men choose nursing. Nursing Times. 73, 113-116.
- Braskamp, L. A, Wise, S. L., & Hengstler, D. D. (1979).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al quality. Journal of

- Educational Psychology, 71, 494~498.
- Bussey, K, & Bandura, A.(1992) Self-regulatory mechanisms governing gender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3, 1236~1250.
- Carver, C. S., & Scheier, M. F.(1982).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 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New York: Springer Verlag.
- Deaux, K. (1976). 남녀의 행동 연구. 이해성 역 1989, 서울: 여화여대 출판부.
- Elkin, F., & G. Handel(1978). The Child and society: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Randon House, Inc.
- Evans, J.(1997). Men in Nursing : issues of gender segregation and hidden advantage. J Adv Nurs, 26(2), 226-231.
- Gati, I. (1986). Making career decision : A sequential elimination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408-417.
- Gati, I. (1993). Career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16-424.
- Hakim, C. (1979). Occupational Segregation: A Comarative Study of the Degree and Patterns of Differentiation between Men's and Women's Work in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London: Department of Employment, Research Paper No. 9.
- Hansen, D. A.(1979). sex-role stereotyping marital adjustment, and marital communica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ah.
- Haywood, M. (1994). Male order. Nursing Times, 90(20), 52.
- Kagan, J.(1964). Acquisition and significance of sex typing and sex role identity.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1101~1115.

- Kelly & Worell, J.(1977) New formulations of sex role and androgyny: A clinical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1101~1115.
- Kohlberg, L. (1966). A cognitive 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 role concept and attitude. In E. Maccoby(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82~173.
- Martin, Carol Lynn(1989). Children's use of gender-related information in making social judge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 25(1), 80~88
- Mason, P. (1991). Jobs for the boys. Nursing times. 87(7), 35-37.
- Minnigerode, F. A., Kayser-Jones, J. S., & Garcia, G.(1978).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Nursing. Nurs Res, 27(5), 299-302.
- Parsons & Bales, R. E.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Free press of Glencoe.
- Schoenmaker, A., & Radosevich, D. M.(1976). Men Nursing Students: How They Perceive Their Situation. Nursing Outlook, 24(5), 298~303.
- Silver & McAtee, P. A(1972). Health Care Practice an Expanded Profession of Nursing for Men and Women. Ame J Nurs, 72(1), 78-80.
- Spence, J. T., Helmreich, R. L., & Stapp, J. (1975). Likeability, sex-role congruence of interest and competence: It all depends on how you ask.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75, 5, 93-109.
- Stephan, C. W., & C. K. Holahan (1982). The Influence of Status and Sex-typing on Assessment of Occupational Outcome, Sex Roles, 8, No. 8.

- Streubert, H. J.(1994). Male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linical experience. Nurse Educator, 19(5), 28-32.
- Turnipseed, L. A.(1986). Female Patients and Male Nursing Students. JOGNN, July/August, 345~348.
- Williams, C., L.(1995). Hidden advantages for men in nursing. Nurs admin Q, 19(2), 63-70.
- Wrightsman, L. (1977). Social Psychology, Monterey, Calif. : Books/Cole.

<부록 1> 질 문 지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 성적체감 · 성고정관념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 성적체감 · 성고정관념의 관계」를 알아보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을 이해하여 다양한 간호교육 운영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각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잘 읽어 보시고 자신의 느낌과 일치하거나 가장 비슷한 곳에 'V'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별 결과는 결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디 성의 있는 응답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남자 간호사와 남자간호대학생들의 발전과 정체성 확립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 10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간호학 교육 전공 이동재 올림

◆ 귀하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 해 주십시오.(각 문항 당 한가지만).

1. 귀하의 연령은? ()

2. 귀하의 학년은?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 4) 4학년 () 5) 휴학생 ()

3. 귀하가 재학 중인 학교는?

1) 3년제 () 2) 4년제 ()

4. 귀하의 병역은?

1) 군필 () 2) 미필 () 3) 면제 ()

5. 귀하의 종교는?

1) 기독교 () 2) 천주교 () 3) 불교 () 4) 무교 () 5) 기타 ()

6. 귀하는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층 () 2) 중상층 () 3) 중하층 () 4) 하층 ()

7. 간호(학)과 진학 동기는?

1) 가족의 권유 ()

2) 본인 스스로의 의지 ()

3) 대중매체(매스컴)의 영향 ()

4)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

5) 간호사라는 직업적 매력 ()

6) 기타 사유 ()

8. 학과 생활 중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1) 여학우와의 관계 () 2) 학과수업 () 3) 실습의 어려움 ()
4) 주위의 시선 () 5) 기타 ()

9. 어머니는 현재 직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과거에 가지고 계셨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10. 귀하의 가족 중에 간호사가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11. 귀하의 가족 중에 여자 형제가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12. 11번 문항에 있다고 답변하셨다면 몇 명입니까?

- 1) 1명 () 2) 2명 () 3) 3명 () 4) 4명 () 5) 기타 ()

성정체감 질문지

다음은 개인의 특성을 포함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① ~ ⑤)에 'V'표 하여 주십시오.

번 호	내 용	매우 그렇다 ⑤	그렇다 ④	보통이 다 ③	그렇지 않다 ②	전혀그 렇지 않다 ①
1	주관적이다.					
2	감상적이다.					
3	용감하다.					
4	상냥하게 말한다.					
5	대답하다.					
6	다른 사람을 잘 감싸준다.					
7	씩씩하다.					

번 호	내 용	매우 그렇다 ⑤	그렇다 ④	보통이 다 ③	그렇 지 않다 ②	전혀그 렇지 않다 ①
8	섬세하다.					
9	의욕이 강하다.					
10	자상하다.					
11	행동적이다.					
12	정서적이다.					
13	권위적이다.					
14	단정하다.					
15	결단성이 있다.					
16	깨끗하다.					
17	강하다.					
18	여성적이다.					
19	활동적이다.					
20	동정심이 많다.					
21	모험적이다.					
22	미적이다.					
23	야망이 크다.					
24	명량하다.					
25	적극적이다.					
26	온순하다.					
27	진취적이다.					
28	거친말을 쓰지 않는다.					
29	의지력이 강하다.					
30	주위를 잘 꾸민다.					
31	자신감이 있다.					
32	따뜻하다.					
33	남성적이다.					
34	부끄러움을 탄다.					
35	리더쉽이 있다.					
36	부드럽다.					
37	운동을 잘한다.					
38	고분고분하다.					
39	지배적이다.					
40	다정하다.					

성고정관념에 관한 질문

다음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섯 가지 수준의 선택(① ~ ⑤)중에서 당신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가까운 문항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번호	내용	매우 그렇다 ⑤	그렇다 ④	보통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②	전혀 그렇지 않다 ①
1	가족의 생계 문제는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생활이 곤란하지 않다면 취학 전 아동을 가진 어머니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3	여성이 잘 되는 길은 자신의 성공보다는 남편을 잘 도와서 성공시키는 것이다.					
4	여자는 직업을 가졌더라도 가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5	남편과 아내 중 직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때 당연히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6	여자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고 남자는 바깥일을 하는 것이 좋다.					
7	직업을 가진 여자는 살림만 하는 여자보다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된 관계를 갖기 어렵다.					
8	남편과 아내의 가정에서의 의사결정권은 동등해야 한다.					
9	여자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정치적인 지위나 참여의 주어야 한다.					
10	취업한 여성이 직장 생활 중에 아이를 가지거나 키우는 것은 좋지 않다.					
11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꼭 아들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12	여자도 능력이 있다면 가정 외에도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3	식당같은 요식업에는 여자가 서비스직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					
14	전화 교환원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적합한 직업이다.					
15	대체로 기관장이나 행정직은 남성에게 적합하다.					
16	간호사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적합한 직업이다.					

번 호	내 용	매우 그렇다 ⑤	그렇다 ④	보통이 다 ③	그렇지 않다 ②	전혀그 렇지 않다 ①
17	여자가 트럭 운전기사 같은 직업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					
18	여자는 우선 잘 생기고 볼 일이다.					
19	여자는 남자보다 외모에 더 신경을 쓴다.					
20	여자들은 바지를 입는 것보다 치마를 입는 것이 보기에 좋다.					
21	육체적인 매력이나 젊음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					
22	여자는 남자에 비해 모험심이 약하다.					
23	여자는 남자에 비해 순종적이다.					
24	여자는 남자보다 성취욕이 약하다.					
25	남자는 여자보다 공격적이다.					
26	여자는 남자에 비해 적극성이 모자란다.					
27	여자는 남자보다 권위적이지 않다.					
28	남자는 여자보다 지도력이 있다.					
29	남자는 여자보다 합리적이다.					
30	대체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사물을 더 객관적으로 본다.					
31	남자는 여자보다 창의성이 높다.					
32	남자는 여자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유능하다.					
33	남자는 여자보다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다.					

전공 만족에 대한 질문

다음은 귀하의 전공 만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섯 가지 수준의 선택(① ~ ⑤)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가까운 문항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번호	내용	매우 그렇다 ⑤	그렇다 ④	보통이 다 ③	그렇지 않다 ②	전혀그 렇지 않다 ①
1	내 전공학과의 교육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2	내 전공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					
3	내 전공학과는 내가 다닐만한 학과이다.					
4	내 전공에 대해서 만족한다.					
5	내 전공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6	전공 도서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7	나는 내 전공학과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8	내 전공학과는 인기학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9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전공학과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10	내 전공학과를 졸업했다는 배경이 사회 생활에 유리할 것이다.					
11	우리 부모님은 나의 전공학과를 멋지게 생각할 것이다.					
12	졸업 후의 진로에 지금의 전공이 도움이 된다.					
13	교수님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가 뚜렷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14	전공 시험은 적절한 양으로 주어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					
15	전공 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					
16	전공 영역에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교수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17	원한다면 언제나 교수님을 만날 수 있다.					
18	교수 - 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전국 남자 간호대학생 현황

	총 학교	재학 학교	재학생	휴학생	총학생
서울	15	13	87	32	119
경기	14	10	94	43	137
강원	9	9	62	23	85
충북	4	4	13	14	27
충남	13	5	31	7	38
경남	15	9	110	44	154
경북	19	11	131	44	175
전북	6	6	16	19	35
전남	16	6	95	23	118
제주	2	1	37	13	50
계	113(개)	74(개)	676(명)	262(명)	938(명)

출처 : 전국 남자 간호대학생 협의회(2003).

ABSTRACT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Lee, Dong Jae

Dept. of Nurs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 Seoul, Korea

Directed by Prof. Chang, Soon Bok

An increasing number of male students are coming to nursing, a profession traditionally dominated by women. However, there is a lack of information on how male nursing students are affected by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Convenience sampling was done to recruit 94 male nursing students from 20 nursing college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003 to April, 2004 by mailed survey.

Instruments were 18 items on satisfaction in major developed by H. S. Ha(2000), 40 items on gender identity developed by J. G. Jeong(1999), and 33 items on gender stereotypes developed by D. I. Kim(1993).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OVA, and Scheffe's post-hoc test were generated by SPSS WIN. Program V. 11.5 for data analysis.

Study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verage score of mal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3.73(\pm .53) from a possible score of 1~5. The pattern of gender identity was mainly undifferentiated (32%), followed by bisexual-type (29.8%), and maleness(19.1%) and femaleness(19.1%) in order. The average score of gender stereotypes was 2.74(\pm .45) among a possible score of 1~5, suggesting that the higher score means more gender stereotypes.
2. The difference of nursing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features showed that male students younger than 24 years-old appeared to be more satisfied more than those older than 24 years-old($t=.219$, $p<.05$). Male nursing students attending three-year junior colleges were more satisfied in their major than baccalaureate students attending four-year colleges($t=2.41$, $p<.05$).
3.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and gender stereotypes appeared to be weakly correlated with course satisfaction($r=.252$, $p<.05$), especially for familial($r=.247$, $p<.05$), psychological($r=.248$, $p<.05$), and intellectual gender stereotypes($r=.253$, $p<.05$). On the contrary, occupational/external gender stereotypes appeared to have a weak

negative correlation with satisfaction in major($r=-.207$, $p<.05$).

4. Mal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in relation to the pattern of gender identity appeared to differ between groups. The results of Scheffe's post-hoc test showed that the bisexual-type group was more satisfied than the undifferentiated group($F=3.25$, $p<.05$).
5. The difference of gender stereotypes according to the pattern of gender identity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conclusion,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male nursing students with an undifferentiated gender identity have the lowest satisfaction in their major. Developing a special program for male nursing students to identify those with undifferentiated gender identity attitudes, as well as offer counseling and education may increase satisfaction in major and adjustment.